

2005 부산건강 및 음식박람회

웰빙 제품으로 변화된 베이커리 홍보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05 부산건강 및 음식박람회가 개최되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사)대한제과협회 부산광역시지회는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하고 웰빙 시대에 맞는 제품 전시 및 시식회를 갖고 베이커리 웰빙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글:송여희 명예기자·사진:김미진, 김시은 명예기자·자료제공:벡스코 홍보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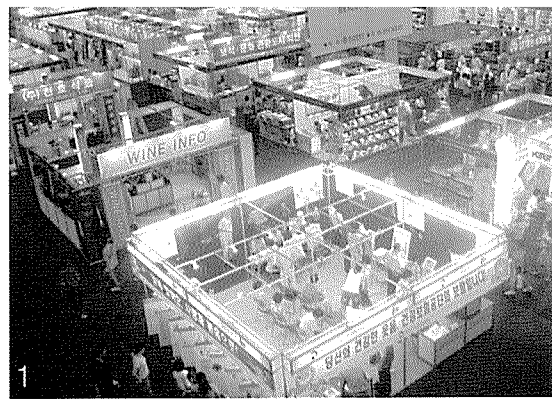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벡스코 주관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2005 부산건강 및 음식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2회를 맞는 이 행사는 부산시민 3만1천여 명이 관람한 가운데 건강한 음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다.

부산광역시는 '다이나믹 부산 건강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로 부산 시민들에게 무료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각종 부산 해운대구 질병의 예방홍보 및 체험교실, 각종 전통음식 및 우수식품의 전시판매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건강한 도시 건강한 시민'으로 생활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했다. 특히 건강관과 음식관으로 나뉜 전시하고 부대행사를 개최해 행사 효과를 높였다.

건강관에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주관하는 17종의 무료건강검진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건강기구, 건강에 좋은 웰빙식품을 전시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전립선, 갱년기장애, 당뇨병, 유포, 결핵, 에이즈, 흡연과 건강, 우울증 등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질병의 예방관리 등 시민 건강을 위한 건강강좌가 열렸다. 음식관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가국의 전통음식, 부산향토음식, 생선회 등 음식을 전시하고 부산의 특색식품 및 웰빙관련 식품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한편 대한제과협회 부산광역시지회는 이번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해 '이제는 웰빙시대 베이커리의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였다. 부산광역시지회는 동주대학, 국제제과학교, 신신공업사, 영광쇼케이스 협찬으로 마련된 부스에서 갖가지 웰빙 빵을 직접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 행사를 위해 21명의 부산지역 제과인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이른 새벽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부스를 지키며 시트론과자점, 루반도르과자점의 각종 무스 케이크를 쇼케이스에 진열하고 초콜릿 생크림 케이크, 딸기 생크림 케이크, 녹차 생크림 케이크, 바나나 생크림 케이크, 포도 생크림 케이크 등 갖가지 케이크와 바이킹 브레드, 유기농 통밀빵, 연유 바게트, 통밀 보리빵 등 웰빙 소재를 사용해 직접 만든 빵을 시식하는 자리를 마련해 일반인들의 높은 인기를 얻었다. 이번 홍보로 자영제과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베이커리 웰빙 제품의 우수성을 참관객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



1, 2 2005 부산건강 및 음식박람회에는 국내 108개 업체에서 310개 부스가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3 (사)대한제과협회 부산광역시지회는 '이제는 웰빙시대 베이커리의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웰빙 제품을 선보였다. 4, 5 부산광역시지회는 갖가지 케이크, 웰빙 빵 등을 부스에서 만들어 판매해 참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